

저는 기본 소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여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펴내는 계간 기본소득에 짧은 소설을 한 편 실으면서 잠시 관심을 가졌었지만 깊이 있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전 포럼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기본 소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정도여서 여전히 잘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저 기본소득이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모두에게, 개인 단위로,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전달되는 정기적인 현금 지급'이라는 사실 정도입니다. 처음 기본 소득의 이러한 정의를 알게 되었을 때 가벼운 충격을 느꼈습니다. '일체의 자격 심사 없이'라는 문구 때문이었는데, 그건 아마도 지난 날 여러 자격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가 겪어야 했던 곤란한 상황들과 그로 인해 느껴야 했던 모멸감 같은 것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의 마음과 기본소득의 마음>이라는 정담의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인 지도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기본소득의 정의 중 '일체의 자격 심사 없이'라는 문구에 충격을 느낄 만큼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에 일어난 추락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 지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마비 정도는 완전마비여서 하반신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척수가 손상된 후유증으로 신경병증성 통증도 앓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고가 난지 십 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약 기운을 빌어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지극히 제한적이지요. 자연히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을 해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뒤따랐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사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몹시 무능해 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고 전 저는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석강사로 일했습니다. 다른 많은 작가들이 그렇듯 저 역시 글쓰기와는 무관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소설 쓰기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 더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일 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극히 제한적인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 초기 지불해야 했던 수술비를 비롯한 막대한 병원비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해결했지만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적지 않은 병원비와 약값, 고가의 수입 활동형 휠체어를 비롯한 각종 장애 관련 보장구 구입비용 등 이전까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지출들이 크게 는 데다 직업마저 잃자 생활은 빠르게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건강만 믿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사실을 후회했지만, 후회라는 게 대개 그렇듯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막막해진 저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생계 급여를 받아보려 여러 경로로 알아보고 서류를 넣어봤지만 수급대상에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다음으론 감당하기 벅찬 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한 각종 서류 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부

양을 책임져야 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환갑이 넘었던 제 아버지에게, 수도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트레일러를 운전해 매달 일정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마흔이 가까워오는 독신의 장애인 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환갑이 넘은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매달 지급되는 소액의 장애인연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도 의료비지원 대상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가뭄에 콩 나듯 원고 청탁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재택근무 일을 하루 네 시간씩 해서 약간의 소득을 더 보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만으론 생활이 곤란하다 느낄 때가 많지만, 정부가 판단하는 저는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받기엔 여전히 덜 가난한 축에 드나봅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로서는 세를 놓아서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팔아서 현금화한 자산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집값이 얼마든, 그것이 오르든 내리든, 그게 도대체 제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장애인연금이라도 받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마저도 얼마 전 자격 재심사를 받고 대폭 삭감되었지만요.

아무튼 저는 수 년 전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는 선별복지지원의 수혜자입니다. 그 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액수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 저는 정기적으로 제가 얼마나 가난하며 장애로 인해 생활 전반에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 되었는지 반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엔 서비스 이용에 있어 거짓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시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불시에 센터 직원들의 방문을 받거나 전화가 오면 언제든지 영상통화로 활동지원사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어 보내줘야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변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틀에 한 번씩 화장실이 아닌 침상에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관장을 해야 하는데, 한번은 관장 중에 센터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아 굉장히 곤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정 수급을 막고 활동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수급할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생각해 낸 것이겠지만, 그러한 검증을 불시에, 게다가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당사자로서 저는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데서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마다 사실 자괴감도 들고 모멸감도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복지 '혜택'일 수 있는 것인지, 수급 대상으로 하여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장애 등급 재심사를 받았을 때나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 재심사를 받을 때마다 사실 저는 조금이라도 더 무능해 보이기 위해, 또 더 가난해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대단한 걸 얻기 위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득이나 부족한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면 저를 도와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활동지원사들이 수령해갈 급여도 줄어들게 되는데, 적은 돈을 받고 목록에 대소변 시중까지 들어주려는 활동지원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모든 돌봄의 책임은 혼자 남겨진 어머니에게 지워지게 되겠지요. 저는 그것이 두려워서 울컥 울컥 솟는 모멸감과 자괴감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난과 무능을 증명하는 일에 매번 지나칠 정도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굴욕적이지만 저로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무능과 가난,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시로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하는 점이 고려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일 텐데, 매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차갑고 견고한 벽 앞에 서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철학자 존 롤스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마땅할 기본재 중에 자긍심을 넣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본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의 가난과 무능을 증명하는 일에 모멸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이들은 저 말고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종류의 고통은 사람의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자긍심을 심어주지는 못할망정 모멸감을 준다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선별적 소득보장은 신청자에게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순간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낙인효과는 아주 강력해서 일부 저소득층 사람들은 자격이 됴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기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찍힐 낙인이 두려워서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의 사례는 그리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이런 저런 구제 신청을 하면서 망설여지고 주눅이 드는 마음을 어찌지 못해 꽤나 갈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신청을 해서 막상 혜택을 받게 되어도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무능과 가난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일체의 자격 심사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정의가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보면,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복지'가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국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고 있는 처지에 불만만을 이야기한다면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어찌면 그들이야 말로 우리가 설득해 나가야 할 가장 보편적인 대중의 모습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많은 대중들은 '일체의 자격 심사 없이' 지급 된다고나 지급 후에도 '노동 요구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런 자리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시의 마음과 개인소득의 마음 사이에 어떠한 접점이 있는지, 그러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다보면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성실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